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5.(금) 11:00 <12. 5.(금) 석간>	배포	2025. 12. 4.(목)

2026년 문화선도산단 신규 조성 공모 개시

- 정부 합동으로 '26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 지정 위한 공모 착수 (`25.12.5 ~ `26.2.6)
- 브랜드 구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 인프라 조성 등 관계부처 사업 종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5년 12월 5일(금)부터 2026년 2월 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서 통합 브랜드(로고·색채·디자인 등)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 최초 선정(구미, 창원, 완주)에 이어 `26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랜드마크, ▲국내 최대 기계종합 산단에 걸맞는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되었다. 각 산업단지는 1차년도에 문화 인프라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구미,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예술 체험행사(창원, 문화학교), 점심 문화공연(완주, 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근로자·주민 등 지역참여단을 구성하여 산단 생활 속 문화수요를 발굴하는 등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시작했다.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하여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신청하면 된다.

< 문화선도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

소관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산업부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문화브랜딩)	청년디자인리빙랩 운영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랜드마크)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노후공장 내·외관 개선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주요 가로 경관 개선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공간 구축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후 임대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활용 연계사업
국토부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산단 기반시설 등 재개발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공모 시행	사업설명회	접수	접수사업 현장실사	선정평가	사업계획 보완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부처 합동 → 지자체 등	전담기관 (산단공) → 지자체 등	지자체 등 → 전담기관 (산단공)	평가위원회 (부처간TF)	평가위원회 (부처간TF)	자문단 및 전담기관 → 수행기관	사업별 전담기관 → 수행기관
`25.12.05	`25.12.09	~`26.02.06	~`26.2월중	~`26.3월중	~`26.3월말	`26.4월초~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선도산단 사업설명회가 12월 9일(화)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진행되어, 사업별 세부설명, 평가 방향성, 질의응답 등이 있을 예정이다.

산업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문화선도산단이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산업단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올해 3개 산단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산업단지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 거점인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공간이 접목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소프트한 공간으로 재탄생 해야한다”고 하면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심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장	이재석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장재원 (044-203-440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경화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임정윤 (044-203-2607)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민태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김효석 (044-201-36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